

8년기근은 잠시 군도에 머물러 야만행에 할말을 잊었다”

회생자 잇단 총집수...소송 도와
일본 수상 방한규탄 시위 등 준비

정신대 대책협 부주한 나남

정신대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해온 유일한 민간단체인 서울 종로구 종로2가 미려빌딩 507호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정옥 등 3인)는 최고법과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수상의 방한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사무실에서 상근하는 조혜란(32·여) 간사와 자원봉사자인 채 일동포 아미시타 영애(32·여)씨 등은 16일에 또 전화 응답과 방문객 접대는 물론 일본 수상 방한 반대 시위준비로 정신조차 못

일체의 국고생 근로정신대 징발을 입증하는 학적부가 공개된 14일 이후, 노청자(72·충남 대천시 대천동)씨가 사무실에서 직접 증언한 것을 비롯해 10여 명의 회생자가 피해사실을 알리

이 협의회는 지난 80년 11월 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6개 단체로 결성된 뒤 전국을 돌며 피해자를 찾는 한편, 일본의 오키나와·미안마 등 정신대의 한 이 사린 현지를 답사해 그 실상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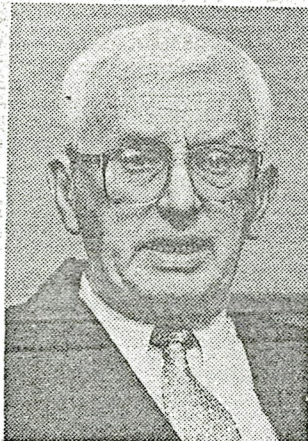
또 여러 차례 정신대 관련 강연회를 개최하고 일본 수상에게

공개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만주에서 3개월 동안 중 군인위부로 생활했던 김학순(67·서울 종로구 충신동)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소송을 적극 돕는 등 피해 배상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다소 거창한 명칭과는 달리 책상 하나와 전화 1대 그리고 협의회 사무실임을 알리는 책상의 일부다.

협회를 통틀어 자리가. 그러나 마련된 것도 협의회 회원인 조혜란은 “최근 급격히 일고 있는 정신대에 대한 분노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국민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재권 기자)



정신대를 직접 조사한 칼 페리스 밀러씨.

정신대 문제를 조사한 칼 페리스 밀러씨는 “정신대 문제는 45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야 비로소 제대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대에 대해一无所知(무지) 상태에 있다. 우리는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었다.”

정신대의 기록을 잠시 엿볼 수 있었을지라도, 아직도 우리 국민이 비록 전쟁범죄의 실체였다.

1992. 1. 17 “옛된소녀에 30분마다...우리는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었다”

정신대 실문당시 美정보장교 첫 제3자 증언

부들의 증언이 최근 공개됐지만 이를 직접 조사한 관계자가 증언하기는 밀려져가 처음.

그의 하트면은 일본의 항복 이전인 45년 6월 태평양전쟁의 최전선지였던 오키나와섬 기노자(吉野) 부근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던 위안부 33명으로 구성된 재향군인회와 함께 수송되었다.

“이것이 바로 20세에 후였다. 우리민가 처음 전 세계의 왜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사형수의 보고하기 위해 조선인 위안부들을 조사했었다. 그리고 30분마다 재향군인회와 함께 수송되었다.

생각하면서도 일본군과 같이 포로화당했다. 그러나 중의사야 그들이 조선에서 강제로 이끌려가려와 위안부 노릇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었다. 그리고 몇 개월 수송됐다. 고밀러씨는 말했다.

전날 오키나와 포로수용소의 수송차에서 조선인 위안부 33명 중 한 명으로 태어난 위안부 33명으로 구성된 재향군인회와 함께 수송되었다.

“이것이 바로 20세에 후였다. 우리민가 처음 전 세계의 왜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사형수의 보고하기 위해 조선인 위안부들을 조사했었다. 그리고 30분마다 재향군인회와 함께 수송되었다.